

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오늘은 11월 나라주일입니다.
- 12월 3일(일) 대림절 첫 주일, 제작회
12월 10일(일) 유초등부 달란트 잔치
12월 24일(일) Teestube에서 예배
- 집사, 권사 피택자 훈련: 11월 27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 말씀일기문집 원고제출자: 장년-권순아, 김성희, 김영희, 김평임, 김호정, 박승은, 배진우, 백윤정, 서민규, 서정인, 석호선, 손교훈, 손재호, 송인선, 오수향, 오지훈, 우선화, 유근임, 이선영, 정수연, 최성호, 최수정, 한상철, 허지은. 어린이-김희원, 두리, 미노, 박하은, 배지엘, 배지울, 이하나, 이하임, 정원, 정이나
- 2024년도 매일성경 신청: 오늘까지 김성희 님께
- 세례교육: 매주 수요일 20시 30분 온라인
- 라합1나라모임: 11월 21일(화) 10시 백윤정 님 가정
- 라합2나라모임: 11월 22일(수) 10시 호텔 KO
- 라합3나라모임: 11월 23일(목) 9시 30분 권순아 님 가정
- 생일: 김찬송, 손민주, 서희정, 허지은, 서연주

◆말씀일기 일정

일/옵15:1-16 월/옵15:17-35 화/옵16:1-17 수/옵16:18-17:16

목/옵18:1-21 금/옵19:1-29 토/옵20:1-29 일/옵21:1-16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13독

◆ 예배위원 안내 ◆

	11월 19일	11월 26일	12월 3일	12월 10일
예배기도	정수연	이미전	정기승	김호정
말씀일기	허지은			
안내위원	예배부			
헌금위원	배진우, 유근임		오지훈, 이선영	
애찬위원	밥상 둘	밥상 셋	밥상 넷	밥상 다섯

40-47호

2023년 11월 19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 주일예배 12:00 Teestube 믿음방
14:00 Mutterhauskirche
-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읍기 12:1-18 '얼어 죽을 지혜' ◀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4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서교독/Wechselwort	교독문 77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255장	다 함 께
기도/Gebet		정수연 집사
말씀일기/Bibeltagebuch		허지은 집사
찬양/Chor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창세기 44:14-34	인 도 자
설교/Predigt	유다에게서 보다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294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소위 지혜롭다는 그 친구들 때문에
 읍은 심적으로 더욱 괴롭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지만, 그 지혜 앞에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아직 지혜가 아니다.

지혜의 거울을 읍에게만 비추기에 바쁜 친구들은
 읍에게는 '얼어 죽을 지혜'였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2).

자신들만 지혜롭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도리어 짐승들에게 물어보고 배워야 한다(7).

뿔내지 않으면서 철저히 자신에게 비추어 드러나는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을

허나, 그것조차도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참 지혜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말, 맘, 몸이 아니면
 '뭇 놈의 얼어 죽을 지혜'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지혜만 자꾸 얼어 죽는다.